【O-7】

인터넷 영양교육이 아동의 자기주도형 학습에 미치는 효과

허은실*, 이경혜, 양한라[1]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평산초등학교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인터넷이 교육도구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문자, 그래픽, 음향 정보, 영상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미디어를 동시에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로,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아울러 교육자와 수용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이런 특성들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아동에게 필요하면서도 흥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도구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인터넷 영양교육 프로그램(www.food79.net)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으로 학습한 교육집단(총 38명)과 책으로 학습한 통제집단(총 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은 교육자가 개입하지 않은 자기주도형 학습형태로 3주 동안 실시하였다. 교육효과는 교육 전과 후에 영양지식 평가와 식품카드를 통한 식품섭취의 다양성 평가로 행해졌고, 교육집단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결과는 SPSS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영양지식은 '식품구성탑' 6문항, '식품지식' 6문항, '편식' 2문항, '아침' 2문항, '간식' 3문항, '비만' 3문항, '생활습관' 3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전 통제집단과 교육집단간의 영양지식 점수는 통제집단이 16.93±3.27, 교육집단이 17.58±2.41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후에는 통제집단이 17.60±2.41, 교육집단은 20.13±3.16으로, 교육집단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01$). 영양지식 점수 분포를 '아주 좋음'(22점 이상), '좋음'(21~18점), '보통'(17~14점), '나쁨'(13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보통'에서 약 15% 정도 감소한 반면 '좋음'과 '아주 좋음'의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교육집단에서는 '보통'이 40.0%에서 교육 후에는 10.5%로 감소한 반면 '아주 좋음'이 2.5%에서 교육 후 34.2%로 큰 증가를 보여 차이를 보였다($p<0.001$). 식품카드는 식품구성탑의 5층을 제외한 1층에서 4층에 해당하는 15종류로 된 총 17장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카드 점수는 교육 전 조사에서 교육집단이 8.18±2.19로, 통제집단이 7.30±2.39보다 유의적인 차이 없이 약간 더 높았으나 교육 후에는 교육집단(8.42±2.74)이 통제집단(6.94±2.56)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인터넷을 통한 영양교육이 책보다 아동의 식품섭취를 다양하게 유도함을 알 수 있었다($p<0.05$). 인터넷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집단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메뉴' 5항목, '내용' 5항목, '디자인' 6항목, '편의성' 8항목의 총 24항목을 가지고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메뉴', '내용', '디자인', '편의성'의 4영역 모두에서 '보통이다'(3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교육 사이트 메뉴 중 가장 흥미로웠던 메뉴와 자신의 식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메뉴는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 영양문제를 다룬 '영양왕국'(52.6%)이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인터넷이 기존의 가장 일반적인 교육매체인 책보다도 스스로 학습을 통해 영양지식 증가와 실천을 유도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